



## 샤워하는 누나가 섹시해요

진병수/성상담, 성교육전문가

누나는 대학생이고요, 저는 고2의 남학생입니다. 누나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도 소문난 미인입니다. 그런 누나가 어려서는 그냥 예뻐서 좋았는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누나의 남자친구에게 질투가 느껴지고 가끔은 누나가 시집을 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언젠가는 누나에게 온 편지도 제가 뜯어보고 하나도 전해주지 않은 적도 있고요. 저는 여자 친구도 있지만 여자친구와는 손도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순진해서가 아니라 괜히 누나보다 못생긴 그녀가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요즘은 누나가 목욕하러 들어 가면 모든 환상을 동원해 상상하기도 하구요. 지난 번에는 목욕탕 문이 약간 열려있는 걸 몰랐는지 누나의 콧노래 소리에 안을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빛은 누나의 몸이 너무 섹시해서 저는 기절할 듯했고 누나가 아니라 여인,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로 보입니다. 어쩌지요? 제가 너무 싫어서 어쩔 때는 머리를 흔들어보고 짹어박아도 보지만 그런 나쁜 생각들은 좀처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춘기 때 누구나 다 이러는 건 아니겠지요. 선생님 이런 저의 나쁜 마음을 돌려주세요.



누나의 남자친구에게 느끼는 감정 이해해요. 왠지 뻗기는 것 같고 누나가 언제까지나 나만을 생각하고 나와 평생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억울하죠.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누나의 마음을 뺏어 그 남자만을 생각하고 있는 누나를 보면 배신감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누나는 어떨까요? ○○남과 같을까요? 누나가 남자로 이성으로 생각해 줄까요? 언제까지나 남자이기 전에 동생으로 남겠죠. 이게 바로 남동생들의 비애라 할 수 있겠죠. 불행한 일이지만 말이죠. 언제까지 어린 동생처럼 행동해야 하나요. 질투를 느껴 한두 번의 투정을 부릴 수 있죠. 그러나 계속 그렇다면 애교가 아니라 집착이랍니다.

예쁜 누나를 둔 것은 행운이에요. 원망이 아니라... 고2면 완전한 성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린애도 아니죠. 몸만 크다고 어른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젠 아이 같은 생각, 행동은 멀리 보내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좋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아 도움을 주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누나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멋진 동생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럼 그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PPFK

**멋**진 누나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무척 부러워하겠는데요.

누나를 이성으로 사랑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문제가 되나요. 아니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그래서 남에게 뻗기고 싶지 않다는 욕심(?) 좀 부렸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누나가 동생을 생각해 주고 언제나 애정을 주며 옆에 있어준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누나는 항상 나와만 살 것 같다는 '착각'을 할 수 밖에요.